

#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Special Theme

## 세계로 나아가다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극단에도, 세계시장을 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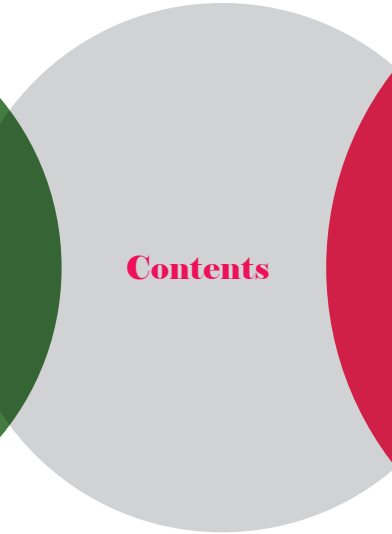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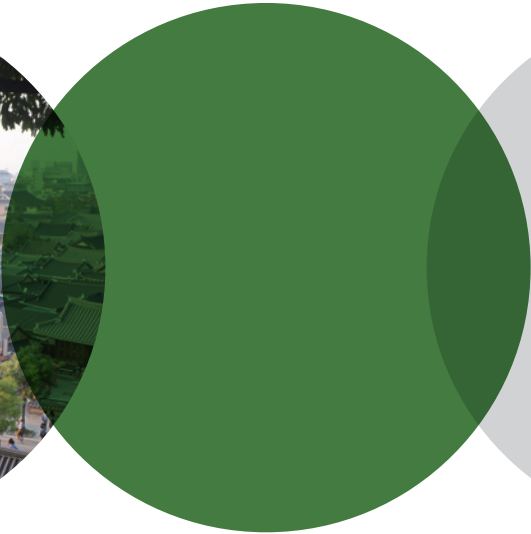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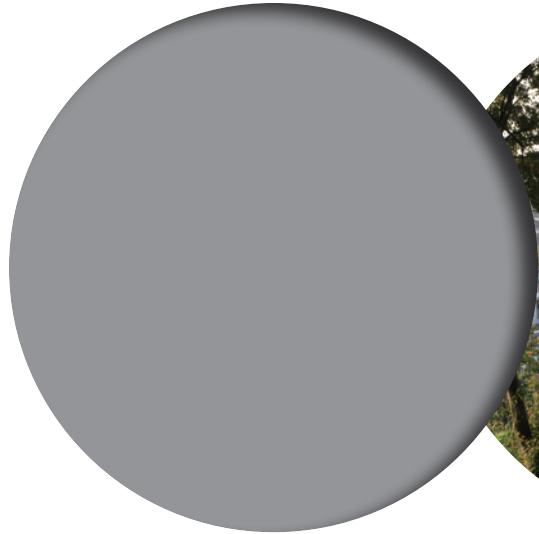
Volume  
20





# Vol. 20 Gyeongnam MECENAT

발행인 최재호 편집인 한동진 진행 김은아  
발행일 2015. 12.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연락처 Tel. 055 285 5611 Fax. 055 274 1923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기획·디자인 (주)아트인시티 Tel. 055 262 2116  
※이 책은 경상남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Contents



Special Theme  
**세계로 나아가다**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극단예도, 세계시장을 넘보다



### COVER STORY 극단예도 <어쩌다보니>

경남메세나 20호 표지사진은 극단예도의 퓨전사극 <어쩌다보니> 공연 모습이다. 극단예도는 1989년 연극을 사랑하는 여섯 명이 힘을 모아 만든 극단으로 1991년 첫 창작극을 무대에 올린 이래 매년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거제도를 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중국 북경의 798예술거리에서 운전기사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은 코미디 <라이방>을 공연하는 등 세계의 시선까지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단예도는 세계명작 시리즈를 한 해에 한 작품씩 제작할 계획이며, 가장 지역적인 작품이 가장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중이다.



Greeting Message	04 최재호 회장 인사말
Special Theme 01	06 세계로 나아가다 -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Special Theme 02	12 세계로 나아가다 - 극단예도, 세계시장을 넘보다

아름다운 동행	16 (주)현대단조 마평수 대표의 '창작詩 가곡의 밤' 18 경원벤티크(주)과 장유여성합창단의 가을음악회 '회사가 무대다' 20 (주)네오씨티알 영산공장, 예술로 물들다
Interview	22 동서미술상의 날개가 되다, 리베라컨벤션 김태명 대표 26 (주)부경 김찬모 대표 & 손양희 국악예술단장의 행복한 만남 30 경남메세나 홍보대사, 뮤지컬 배우 홍지민을 만나다
엔조이컬처	32 회원사 직원들과 함께한 전주한옥마을 탐방 34 The Lahn 김갑란 패션갤러리
결연단체활동후기	36 경남A&B오케스트라의 두번째 도전, 구북예술촌 연주회 38 한마음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장애를 이겨내다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40 경남 상공인들과 음악의 만남,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42 메세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메세나기업 사례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메세나 소식	44 아름다운 시작을 축하하는 '2015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46 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축제 '2015 경남메세나대회' 50 소외이웃을 위한 따스한 문화나눔
스페셜 칼럼	52 문화예술 강국을 꿈꾸며 / 신제남

회장 인사말

# GREETING MESSAGE

‘예술이 희망이 되는 문화경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해보다 차분한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다들 조금씩은 움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기를 희망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고들 하지요.

지난 가을 약관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자 ‘조성진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클래식에 집중되고, 앨범을 사기위해 클래식 매장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욕심만으로 정도(正道)를 걸어 결국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우뚝 선 조성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기꺼이 매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지도 알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2007년 창립한 이래, 경남의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인들에게 창의적 영감을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정부의 공식적인 예술후원 매개단체로 인정받았고 다양한 매개사업들을 수행하며 전년도보다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예술이 희망이 되는 문화경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기업과 예술이 조화롭게 성장해나가는 메세나의 비전과 열정으로, 경남예술이 더 힘나고, 도민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예술이 기업경영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남메세나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도(正道)입니다.

201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화가 깃들고, 소중한 꿈을 이루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경남메세나협회장 **최재호**

세계 곳곳에서  
누·비·는  
경남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도전

- 큰들문화센터
- 고디-니고 챔버앙상블
- 창원시남성합창단
- 한사랑다문화여성합창단
- 동락문화예술연구회
- 함안시조협회
- 대한크로마하프연주회
- 가곡전수관
- 아이네플루트앙상블
- 고성오광대보존회
- 경남사진학술연구원
-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
- 315문화재단
- 창원시마산여성합창단
- 손양희국악예술단
- 극단에도



**GO TO THE WORLD**

ORIENTALE CONCENTUS VIII  
歌韵东方 VIII

THE CERTIFICATE IS AWARDED TO  
Changwon Women's Chorus  
Song: Spring Eyes

Category: B1 - Equal Voices Choir (Open)  
Nationality: Korea

Musicality (60%)	Song 1		Song 2		Overall Musical Impression (40%)	Total (100%)
	1	2	1	2		
81	83	83	83	83	83	83.2
85	85	85	85	85	85	85.2
88	88	88	88	88	88	88.2
90	90	90	90	90	90	90.2
92	92	92	92	92	92	92.2
95	95	95	95	95	95	95.2
Total Average Points:						83.2

Diploma Awarded: <Gold Grade III>

TOH BAN SHENG (Artistic Director)  
VYTAUTAS MISKINS (Chief Adjudicator)  
KO MAESUSIITA (Adjudicator)  
MARIA TERESA VICONDE-KOLDAN (Adjudicator)  
PEARL SHANG (Adju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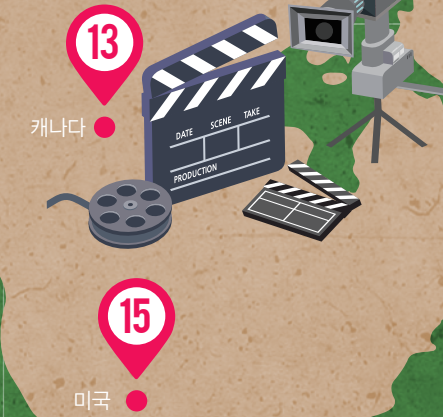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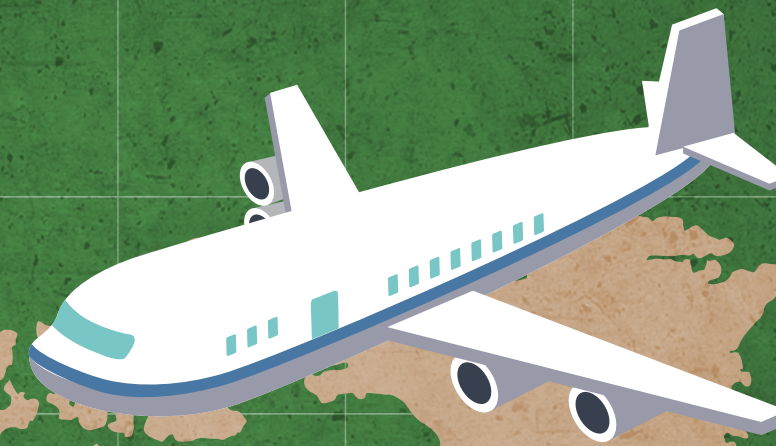
Ms Maria Theresa Viconde-Koldan (Philippines)  
Ms Pearl Shang (United States)

## Special Theme

세계로 나아가다 :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Writer 메세나



	예술단체명	장소
01	큰들문화센터	일본
02	꼬니-니꼬 챔버앙상블	일본
03	창원시남성합창단	일본
04	한사랑다문화합창단	일본
05	동락문화예술연구회	일본
06	함안시조협회	중국
07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말레이시아
08	가곡전수관	싱가포르
09	아이네플루트앙상블	베트남
10	고성오광대보존회	태국
11	경남사진학술연구원	인도네시아
12	다벌유스워드오케스트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13	315문화재단	캐나다
14	창원시마산여성합창단	싱가포르
15	손양희국악예술단	미국

2015년 경남메세나 결연을 통해 111개의 예술단체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았고, 예술단체들의 활약이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 진출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순수예술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눈에 띄는 좋은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예술활동은 경남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후원하는 기업들에게도 세계를 누비는 예술단체들의 활약은 큰 자긍심이 되고, 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올 한해 세계 곳곳에서 예술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경남예술을 빛낸 메세나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Special Theme**

세계로 나아가다 :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01 큰들문화센터**

예술단체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은 단연 일본이다. 큰들문화예술센터(대표 전민규)는 일본의 문화감상단체 '로온'과 2006년부터 교류해왔다. 로온의 초청을 받아 마당극 <순풍에 돛달고>, 풍물놀이, 판소리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일본 전국순회공연을 했으며 2017년도에도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온을 초청하여 큰들 정기공연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130명 시민 풍물놀이>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동안 큰들의 영향으로 일본내 로온 지부들에서 풍물놀이 동아리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일본인들도 많다고 한다. 큰들은 지난 12월 19일 일본에서 개최된 로온의 정기공연 <베토벤 제9번 교향곡 200명 합창> 무대에 참여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쌓고왔다.

**02 꼬니-니꼬 챔버앙상블**

꼬니-니꼬 챔버앙상블(대표 김수민)에서 꼬니-니꼬는 Corea, Nippon의 줄임말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현악연주자들로 2008년 창단된 단체로서 매년 한일 양국에서 활발한 음악교류를 이어왔다. 지난 2012년 한일친선 교류음악회에서 가야금 협연공연을 열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 12월 20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수미요시 신사노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가야금 산조협연으로 국악과의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여 주목 받았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일본 후쿠오카 바이올린 영재와의 협연무대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 외 위렌 세레나데, 리베르탱고 등 아름답고 서정적이며 귀에 익숙한 곡들을 선별하여 보다 친근한 연주회로 일본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03 창원시남성합창단**

창원시남성합창단(대표 박용규)은 지난 9월 4일 일본 후쿠오카 시민센터극장에서 일본 후쿠오카 교민을 위한 연주회를 열었다. 교민들과 일본인들로 만석을 채운 관객들은 열띤 호응과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 민요와 울릉도 트위스트 등의 노래에서 흥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부르는 재일교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원들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박용규 대표는 "재일교포로 살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는 음악회와 같은 문화교류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창원시남성합창단은 이날 게스트로 참여한 일본 조이플남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 초청을 받아, 2017년에 또다시 후쿠오카를 찾아가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04 한사랑다문화여성합창단**

한사랑다문화여성합창단(대표 방미혜)은 창원시남성합창단의 일본공연에 협연으로 참여했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게스트 중 인원도 적고, 경험도 적은 신생팀이지만 탁월한 선곡과 열정적인 무대매너로 '한사랑다문화여성합창단'에 대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느끼는 것도 많았다고 현지에서 소감이 들려왔다. 새내기 단체의 외국경험은 앞으로 좋은 단체로 성장해나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05 동락문화예술연구회**

미술단체 또한 일본에서 한국미술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왔다. 창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동락문화예술연구회(회장 박금숙)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핑거포럼 갤러리(GALLERY FINGER FORUM)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했다. 작가들의 창작발표의 장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에서 전시는 물론, 스케치와 아트기행도 함께 진행하여 작가들에게 색다른 창작경험이 되었다. 전시회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다녀갔고 특히 한지를 이용한 김학일 작가와 서미희 작가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갤러리에서 전해왔다. 또한 나고야시 중심에 위치한 아이치예술문화센터로부터 교류전을 갖자는 제의를 받기도 하였다. 박금숙 회장은 "동락해외전은 2010년도에 이어 두 번째지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현지의 사정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이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무엇보다 아트기행을 통해 도심의 공공미술이 갖는 의미와 아이치현 미술관의 치밀하게 기획된 전시, 그리고 전시공간의 여유로움, 시민들에게 대관하는 예술문화센터와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전시소감을 밝혔다.



**06 함안시조협회**

함안시조협회(회장 김재순)는 중국 길림성에서 중국조선족 시조협회와 함께하는 시조창대회를 8년째 개최해왔다. 이 행사는 조선족 동포사회의 강력한 전수요청에 따라 시작되었고, 동포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제는 시조동호인, 가수단체, 통소단체, 문인, 교수, 교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규모가 커졌다.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시조창의 매력이 중국내에 퍼져나가 방송국 기자와 PD가 파견되어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조선족 동포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던 부모들을 떠올리며 시조창을 즐겨 부를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중국내 시조창 저변이 확대되어 중국사회에 사단법인 중국조선족시조협회가 탄생하였고 한국의 시조창이 중국사회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하였으니, 한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있다. 김재순 회장은 "앞으로도 해마다 중국 연길시에서 시조창대회를 여는 것은 물론 시조시인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하고, 시조창 대회에 참여시킬 것이며 좋은 성과를 올려 한국내 시조 동호인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중국 내에서 한국의 시조창이 더욱 존중받고 계승되어 한중사회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사랑도록 할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07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회장 이미애)는 2012년 태국, 2014년 필리핀에 이어 올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초청공연 및 재능기부를 하고 왔다. 인근 아시아 국가의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음악문화 보급을 위해 떠난 협회는 말레이시아의 어느 난민학교에서 120명의 학생들에게 오카리나를 기부하고 연주를 가르쳐주었고, 함께 연주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미애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것들을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공연여행을 기획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만난 아이들의 맑고 고운 눈망울이 지금도 가슴에 아련히 남는다"고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내년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를 찾아가 몸바이 등에서 재능기부 및 공연을 열어 문화예술로 따스한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01 일본문화단체 '로온'의 초청으로 일본순회공연을 개최한 큰들문화센터  
02 대한크로마하프 연주협회로부터 오카리나를 배우는 말레이시아 아이들

## Special Theme

세계로 나아가다 :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 예술단체들

## 08 가곡전수관

싱가포르로 떠난 단체도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을 공연하고 전수하는 가곡전수관(관장 조순자)은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남음 청년음악회 및 심포지움'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이번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걸작인 '가곡'과 중국의 'Nanyin(南音)' 일본의 'Gagaku(雅樂)'의 비교연구를 통한 쇼케이스 성격의 연주회로 가곡의 세계화 및 국위선양에 그 목적이 있었다. 싱가포르 드라마센터, 싱가포르 예술학교 등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약 800여명의 관객이 가곡전수관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가곡전수관은 태평가 <이려도>, 여창가곡 <사랑을>, 한중일 합동 <Autume> 등을 연주하였고, 공연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다. 중국의 남음음악을 주로 연구/연주하는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화교로 구성된 젊은 연주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었으며, 공연 후 서로의 악기에 대한 연주방법 및 음악적 교류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03

## 09 아이네플루트앙상블

문화교류를 위해 베트남으로 떠난 아이네플루트앙상블(대표 김영)은 6월 8일 호치민시 낙비엔콘서트홀에서 '베한 문화 우정의 밤'을, 9일에는 호치민시 오페라하우스에서 '실내악의 밤' 공연을 개최했다. '베한 문화 우정의 밤' 공연은 호치민시 한인회의 초청을 받아 베트남 한국영사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뤄질 수 있었는데, 낙비엔홀 400석 전석이 매진되고 입석이 100여명이었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공연의 문을 연 마산오광대의 흥겹고 신명나는 전통연회는 국적과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감미로운 플루트 연주에 이어 플루트앙상블과 첼로, 피아노, 거문고, 해금의 협연으로 <아리랑>을 연주하자 객석은 감동으로 물들었다. 이튿날 '오페라 하우스' 초청으로 이뤄진 '실내악의 밤' 공연은 전날의 뜨겁고 활기찬 분위기와 달리 호치민시의 클래식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차분하게 이뤄져 아름다운 클래식의 밤이 되었다.

## 10 고성오광대보존회

태국으로 간 단체도 있다. 고성오광대보존회(회장 이윤석)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태국 팻차부리에 제5회 아세안 예술문화축제 초청공연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태국 팻차부리 Mongkut왕 역사공원과 프롬마누손 중·고등학교에서 공연을 열어 약 1만 여명이 관람했다. 다른 참가국들의 정적인 공연과는 달리 역동적인 고성오광대탈놀이 공연과 관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버나놀이 등에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우리나라 전통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국가 이미지를 전달하고,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고성군과 한국전통예술의 홍보 및 국위선양을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는 이윤석 회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공연소감을 전했다.

## 11 경남사진학술연구원

경남사진학술연구원(대표 김관수)은 매년 초 발리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한국에서 교류전시를 열고 있다. 올해 5월 <신들의 섬>이라는 주제로 IPA갤러리에서 교류전시를 열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발리프로젝트'에 참가한 12명의 한국 사진작가와 인도네시아의 사진작가 Sri Wahjuni Sariat 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사진기획전이였다.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4주 연속 개최하는 전시회에서 주로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소재로 힌두교를 믿는 발리 사람들의 생활상과 독특한 자연풍광과 사원들을 사진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발리인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관, 생활양식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되었다.



04

## 12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경남예술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되었다. 함양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대표 전계준)가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 5개국 7개 도시에 순회공연을 다녀온 것이다. 다별유스는 이미 2012년 유럽 3개국에 초청공연을 완수하여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3년간 꾸준히 연습하고 발전하여 이번에 두 번째 유럽공연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리산 산골 아이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포부와 희망을 품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 한층 더 도약해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 13 315문화재단

국제예술행사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둔 단체들도 있다. 315문화재단(대표 백한기)이 제작한 영화 <우리들의 지난 여름>(Our Last Summer)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 제29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 상영되었다. 청소년들의 성장의 아픔을 다룬 이번 영화는 섬세한 감정표현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많은 호평을 받으며 한국 독립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 14 창원시마산여성합창단

창원시마산여성합창단(대표 박미경)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오리엔탈 컨서트스 국제 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 유수의 20여개 합창단이 참가해 실력을 뽐낸 이번 페스티벌에서 마산여성합창단은 우성규 선생의 지휘 아래 <청산별곡>, <가시리> 등 한국 전통음악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1963년 창단하여 오랜 세월동안 지역최고의 합창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마산여성합창단은 앞으로도 더욱 연습에 매진하여 국내외 페스티벌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15 손양희국악예술단

손양희 국악예술단장은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주한국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LA에 다녀왔다. LA에 살고 있는 교민들 대다수가 국악에 관심과 애정이 많아 대회도 열띤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손단장은 심사뿐만 아니라 단원들과 축하공연으로 우리의 대표적 고전 춘향가를 창극으로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예술단체들의 해외교류 사업을 하며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자금 부족이다. 교통비와 숙박비, 체류비 등에서 엄청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의 경우, 함양LS농기계 임요완 대표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함양에서 나고 자라 사업을 하고 있던 임대표는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었고, 다별문화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하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한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체의 사정을 듣고, 메세나를 통해 결연을 맺으며 후원자로 나섰다.

임대표는 통 큰 후원에 이어 최근 본격적으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백중승 사무국장은 "힘들지만 이렇게 믿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별단원들과 예술의 나라 러시아에서 공연하는 것이 꿈입니다. 산골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행복이 아닐까요?"라고 말한다.

03 경남사진학술연구원 회원들이 발리의 전통문화를 담은 사진

04 유럽 5개국 7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은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

## Special Theme

세계로 나아가다 : 극단에도 세계시장을 넘보다

## 중국공연 마친 극단에도

가장 거제도다운  
작품으로  
세계시장을 넘보다

Writer 김규남 Photo 극단에도 제공

거제도에는 '예술의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극단이 있다.

가장 거제도다운 공연으로 거제도를 예술의

향기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극단에도.

그 이름에 걸맞게 거제도의 문화를

끌어올리고 나아가 중국 예술거리에서

경남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선보인

극단에도를 만나 중국 공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9월, 중국 북경의 798예술거리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다. 유명한 배우도, 유명한 연출가도, 유명한 작품도 아니었지만 뛰어난 연출력과 호소력 짙은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예술에 대한 사랑 하나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성공적인 첫 공연을 마친 극단에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거제도민이라서, 경남도민이라서 더욱 더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구상을 멈추지 않는 이삼우 감독을 만났다.

**중국 예술거리에서 멋진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공연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극단 이루마의 이정유 대표 소개로 중국 공연 기획자를 알게 됐는데 그 분 소개로 북경 798예술거리에 있는 798예술극장 대표를 소개받았어요. 예술극장 대표가 최근 중국인이 한국 공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작품으로 만나길 희망한다며 초청을 해 줘서 중국 공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공연한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그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가장 거제도다운, 거제도의 색깔을 가진 작품인 <거제도>를 공연장에 올릴 예정이었어요. 중국 극장 대표도 그 작품을 원했고요. 그런데 중국에는 아직 검열제도가 남아 있어서, 검열에서 불허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당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제도>의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예민한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다고 판

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경 공연을 2주 앞두고 급히 작품을 교체하여, 운전기사들의 좌충우돌 팔자 탈출기를 다룬 코미디 작품 <라이방>을 무대에 올리게 됐어요.

**중국 공연 당시 관객의 반응은 어땠나요?**

해외에서 한류가 많이 식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는 한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공연은 급하게 작품이 변경되는 바람에 홍보 부족으로 많은 관객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관객들이 공연에 몰입해 주고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내 관객들과 만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제와 경남권역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선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전국적인 작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우리와 친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녀씨 이야기>처럼 경상도 여자라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거제도>처럼 거제사람이라면 더 웃기고 아픈 이야기 등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지역적인 작품이 가장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극단 예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거제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전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시장이 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충분히 꿈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자신들이 타고 자란 지역에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지역에 대한 공연을 올리고, 이를 공감해주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갈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거제도민이, 경남도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꾸준히 무대에 올릴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 극단에도

1989년 연극을 사랑하는 여섯 명이 힘을 모아 만든 극단으로 1991년 첫 창작극을 무대에 올린 이래 매년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거제도를 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폐왕성>, <거제도>, <바람이 멈춘 마을>, <선녀씨 이야기> 등을 무대에 올려 시민들은 물론 많은 연극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16** / Accompany

**22** / Interview

**32** / Enjoy Culture

**36** / Activities Notes

**40** / Intermediation Business

**44** / Mecenat News

**52** / Special Column

## 어머니 생각

어느 가을날 세상을 펴보이셨던 어머니  
김장김치 서른 세 독에 날 낳으시고  
이렇게 늙었다던 당신의 말씀  
열여덟 가마 타던 고운시절엔  
하얀 명주 수건 속에 곱게 싸여있었다지요  
물레에 감겨 돌아가는 세월은 하도 서글퍼  
아랫목에 잠든 어린 것 이부자락 보듬어줄 때  
뉘에집 개 짖는 소리  
동짓달 바람 끝에 문풍지는 울어대고  
뚫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달빛조차 넘보지않던 제야에  
두레박 물동이 이고 우물가로 나가실 때에도  
한 발 한걸음을 탓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 봄살 떨친 지 오래건만  
어머니의 정을 이 한밤은 내 불면으로  
가슴앓은 당신의 아들은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마평수 현대단조 대표



01  
—  
아름다운  
동행

# 현대단조 마평수 대표의 '창작詩 가곡의 밤'

Writer 김혜연 Photo 강성윤

## 시를 사랑하는 기업인과 가곡의 아름다운 만남

- 01 이번 공연을 함께 만든 우영자 작사가, 강건식 작곡가, 정강석 작곡가, 마평수 대표, 양기정 작곡가, 서일옥 시인(왼쪽부터)
- 02 테너 이대호와 소프라노 신행미의 무대



01

###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창작詩 가곡의 밤을 연 주인공 ㈜현대단조 마평수 대표가 건넨 무대 위에서의 첫 인사말이다. 현재 현대단조를 창업한 지 20년이 흘러 탄탄한 기업인으로서의 길을 승승장구 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겸손한 인사말을 하면서까지 그가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얼굴을 마주한 마평수 대표에게 시 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산을 좋아해서 자주 오르내리다보니 어느 날부터 문득 가슴에 무언가 말없이 전해져 오는 게 있었다. 나무의 말 바람의 말 이런 대자연의 말을 서투고 부끄럽지만 일기처럼 진심으로 옮겨 쓰고 싶었다. 더구나 산의 품속을 빠져나와 바쁜 현실로 돌아오면 아등바등 보잘 것 없는 내가 더 선명하게 잘 보였다. 다시 말하자면 산이 건네주는 경건함에 마음 다 잡고 초심 잃지 않으며, 어렵고 힘든 때를 늘 기억하는 겸손함부터 배웠다. 그것이 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읽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라 대답한다. 혹 시를 쓰다 보니 등단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다시 묻자 한사코 두 손까지 내저으며 부끄러운 수줍음을 잘 안다며, 오늘 이 행사도 옆에서 격려하고 부추기는 바람에 나섰을 뿐이라고 겸연쩍어 한다. 그러면서 이왕 시작한 행사 잘 마무리해서 오늘 오신 분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분주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 관객의 마음을 따스하게 채워주는 공연

어떤 질문이 여기서 더 이상 필요할 것인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마평수 대표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뜻밖의 인사말을 바친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대는 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자주 들어 귀에 익숙한 가곡들을 프로그램 중간 중간 곁들여 관객들의 지루함을 피했고, 어린이 합창단의 낭랑한 목소리를 맛있게 양념으로 곁들여 부모와 함께 온 어린 관객의 귀마저도 충족시켰다. 무엇보다 마평수 대표의 시를 작곡한 창작가곡은 실력과 성악가들의 격조 있는 목소리로 실재를 꽉 채우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여느 가곡프로그램 못지않은 알찬 시간이었다. 또한 시낭송으로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 주기도 해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이미 객석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 흥뻑 빠져버리기도 했다.

### 경남 교원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다

이날 연주를 맡은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이사 우영자)는 마평수 대표가 6년째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오케스트라 박종화 지휘자를 비롯, 연말이라 바쁜 와중에도 단원들 모두 자신의 일처럼 참여했다. 오랜 후원자에 대한 정성 가득한 보답이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낭만파 대표님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어떨까. 만약 존경이란 강요하지 않고 저절로 우러나는 진심어린 행동에서 비롯한다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한해의 끝자락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02

이즈음에 마련된 '마평수 창작詩 가곡의 밤' 이아말로 분명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직원과 대표가 한 공간에서 격의 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그들의 숨겨져 있던 결속력의 진가가 더 빛나보였기 때문이다.

현대단조 김민우 대리는 "현대단조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관람하러 왔다. 대표님의 주옥같은 시 구절구절에 정강석, 양기정 선생님 등 경남의 훌륭한 작곡가들과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선율이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가곡들을 들을 수 있었기에 아주 행복한 밤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이 들어 손에서 일을 놓게 되면 틈틈이 모아둔 글들을 책으로 묶어내고 싶다고 밝히는 마평수 대표, 아마 꽤 많은 분량이 모여 약 7권은 거뜬히 넘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본연의 일에 더 충실하고 싶다는 그에게, 오늘 발표한 시 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시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자 어머니 생각이라고 대답한다. (어머니 생각 - 마평수 / 15페이지 참조)

### 어머니를 위해 바치는 시

그는 자신이 쓴 시에 스스로 이렇게 도움말을 곁들인다. '열여덟에 시집 오셔서 먼저 낳은 자식 세 명을 저 세상에 먼저 보내고 어머니 서른세 살 가을에 낳아 주신터라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나 정말 고집 센 나를 키우면서 금과 옥처럼 귀하게 키워주신 어머니께 이 시를 바친다고'. 그뿐만 아니라 단어 앞에 세상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롯이 평생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니란 큰 단어 뒤에는 늘 뜨거운 눈물이 출렁이며 숨어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본받고 높은 사랑을 보답하고자하는 마음을 시로 노래한 호심 깊은 시인이자, 고집 있고 소신 있게 한 기업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기업인,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맡은 역할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원하지 않고 충실히 해나가는 노력파 기업인,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모범기업인 마평수 대표를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한 오늘은 갑자기 닥친 한파에도 작고 소소한 행복감과 훈훈한 즐거움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꽤 두근거리는 하루였음이 분명하다.



01



02



03

02  
—  
아름다운  
동행

# 경원벤티크와 장유여성합창단의 가을 음악회 '회사가 무대다'

Writer 김규남 Photo 구본수

음악과 그 음악을 기꺼이 들어줄 열린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무대가 된다.

- 01 추운날씨에도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장유여성합창단
- 02 열린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는 임직원들
- 03 언제나 청춘, 어르신들의 색소폰 연주
- 04 경남의 대표적 색소폰니스트 김성하의 멋진 솔로

가을치고는 제법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던 10월의 마지막 날, 경원벤티크(주) 잔디광장에서 작은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 때문에 잔뜩 웅크린 어깨 위에도, 먼지 묻은 작업복 위에도 음악의 따뜻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음악이 회사로 갔다. 평소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휴식의 공간이었을 잔디광장이 순식간에 무대로 변했다. 피아노 한 대와 단상 하나, 음향기와 무대를 빛내 줄 연주자들이 모이자 어느 공연장 못지않은 훌륭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오후 4시의 자연광이 선사하는 적당한 조명과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의 무대효과까지, 더할 나위 없는 무대였다. 그리고 여기,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음악을 즐겨 줄 좋은 친구들로 객석이 가득 찼다. 쇠소리만 가득했던 회사가 잔잔한 음악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 공감을 나누는 무대

공연이 시작되자 잔디광장에 모여 앉은 직원들은 두 번의 전율을 느꼈다. 한번은 10월치고는 너무 추웠던 날씨 때문에, 또 한번은 가슴을 울리는 합창의 매력에 취해서. 공연은 장유여성합창단의 하모니로 문을 열었다. 경원벤티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일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선곡이 필요했다. 이에 합창단은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필두로 대중가요와 합창단의 자작곡 등 직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구성했다. 이어진 공연은 바리톤 정명기 교수의 무대였다. 야외에서, 그것도 쇠소리 나는 공장의 야외 광장에서의 공연이 익숙하지는 않았을 터. 하지만 그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 직원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하면서 관객들과 교감을 나눴다. 가을과 무척 잘 어울리는 중저음의 바리톤으로, 남자의 가을을 노래했다. 실제로 관객들 대다수가 남자였으니, 그 목소리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여기에 가을에 어울리는 질은 감성을 가진 악기인 색소폰 연주도 이어져 직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 문화공연을 회사로, '회사가 무대다'

이번 '회사가 무대다' 공연은 바쁜 직장생활에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는 직원들을 위해 공경열 대표와 장유여성합창단이 함께 준비한 무대다. 공 대표는 평소에도 직원들의 문화와 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좋은 공연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생일날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쓰는 비용을 아끼워하지 않았다. 이번 공연 역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공 대표가 마련한 작은 선물이었다. 공 대표와 합창단의 노력 덕분에 직원들은 잠시나마 업무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 항상 어딘가에 찾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연 한 편 보기 힘든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다. 하지만 경원벤티크 직원들은 찾아와 준 음악회 덕분에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연주를 즐길 수 있었다. 오랜만에 음악다운 음악을 들었다는 품질팀 이희준 대리는 "힘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돼서 좋고,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멋진 오케스트라가 없으면 어떤가. 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관객이 아니면 어떤가. 음악과 그 음악을 기꺼이 들어줄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무대가 된다. 비록 그것이 기계음 가득한 공장일지라도 말이다. 경원벤티크가 보여준 '회사가 무대다' 공연은 이를 확인시켜 준 가장 실험적이고 가장 획기적이며, 가장 성공적인 무대였다.



04



01



02



03



04



05

03  
—  
아름다운  
동행

## 네오씨티알 영산공장, 예술로 물들다

Writer 김규남 Photo 주삼식

제5회 아이온 아트 '예술아! 공장에서 놀자~'

“

생산라인 안에 악기하나, 붓하나, 북하나 더하니  
일터가 흥겨운 놀이터로 변신!  
네오씨티알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하루

”

### 공장이 예술공간으로 변하다

지난 가을, 창녕에 위치한 (주)네오씨티알 영산공장에서 문화예술과 기업이 만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진행됐다. 지역민들과 직원 가족 등을 초청해 생산라인을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 차가운 공장에 온기가 흐르고 기계음 대신 음악소리가 들리는 특별한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새로운 시도였다. 결연단체의 정기연주회에 후원기업의 임직원을 초대하는 형태의 결연사업이 아니라 기업으로, 그것도 공장으로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다채롭게 꽃피웠다. 매칭펀드 결연을 맺은 네오씨티알과 아이온예술공연은 기업과 예술이 만나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메세나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직원, 직원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이벤트를 마련했다.

공연시간에 앞서 영산공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공장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단조, 가공, 열처리를 진행하는 A동과 조립, 포장을 하는 B동을 비롯해 공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네오씨티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소 아빠가 일하던 곳, 남편이 일하던 곳을 둘러보며 가족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고, 지역민들은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 다채로운 공연과 즐거거리

이번 행사가 특별했던 점은 공장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않고 평소의 모습 위에 문화예술 향기를 살짝 덧입혔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금속의 기계가 가득한 공간에서 마술쇼를 해도, 기계음이 가득해야 할 자리에 현악기의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평소의 생산라인 안에 악기 하나, 붓 하나, 북 하나만 더해도 일터가 놀이터로 변신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도 다채로웠다. 빈 공간을 순식간에 멋진 그림으로 채우는 천재 작가 이주림 선생의 그림 퍼포먼스와 불소가 인상적이었던 매직쇼, 오직 한사람을 위해 연주하는 듯한 황홀함을 느꼈던 스트링앙상블 연주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벌룬쇼, 캐리커처 등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공연들이었다. 무엇보다 인기를 끈 공연

은 바로 네오씨티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꾸민 난타 무대. 임직원 12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난타공연팀의 무대를 보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 직장이 즐거워지기 위해

이날 생산라인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백현경 아이온 총예술감독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감독을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노력해 준 덕분에 이번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네오씨티알 김재철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여러 행사장을 누비며 공연을 보고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를 즐겼다는 김 대표는 문화가 만들어 줄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확인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 직장이 곧 즐거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이온예술공연과 함께 직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탈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답답한 일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마음. 이번 행사는 직원들에게 일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일터가 놀이터로 변했으니 답답한 일터를 벗어나지 않고도 자유를 즐길 수 있었고, 발품 팔아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멋진 공연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 01 이주림 선생의 환상적인 그림 퍼포먼스
- 02 불소를 관람하며 즐거워 하는 지역민과 직원 가족들
- 03 차가운 공장을 부드러운 현악기 소리로 가득 채운 스트링앙상블 연주
- 04 따뜻한 어묵을 먹고 있는 네오씨티알 직원들
- 05 많은 이들을 흥겹게 한 네오씨티알 임직원들의 난타무대

# 특별하지만 일상적인 나눔의 실천

리베라컨벤션 김태명 대표

Writer 메세나 Photo 윤상희



## ‘나눔’은 아버지의 가르침

창녕에서 나고 자란 김태명 대표는 ‘어려운 이를 도우며 인간답게 살리’는 부친의 가르침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으켜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비로소 성공에 다다랐을 때도 그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이 신체적 장애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타고난 배려심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인 김태명 대표



## CEO Interview

“제 사회공헌 활동 중 95%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이고, 예술분야 지원은 5%밖에 안돼요.” 인터뷰가 시작되고 농담처럼 던진 김태명 대표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미 메세나 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다니...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분야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했다.

# Convention

##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후원

김태명 대표의 사회공헌은 15년 전, 고향 창녕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18개 시·군 곳곳을 찾아가 경로위안 잔치를 베풀고, 사랑의 기금을 전달하고, 쌀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직접 발로 뛰는 기부 실천가라 불림직한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 어려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준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겨울에는 도내 600곳의 어려운 가정을 소개받아 난방유를 가구당 20L씩, 총 3억원치 가량을 기부하였다. 또한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장애아동들의 이동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을 기증하였고, 최근에는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4년에는 경

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면서 경남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37번째 회원이 되었다.

김 대표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남을 돕기 위한 마음이었으나 어느 순간 그것이 스스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제 사회봉사는 제 일상이 되었죠.”



고급스럽고 독특한 느낌의 감각적인 이 건물의 디자인은 다름 아닌 김태명 대표다.

### 창원시민을 위해 랜드마크를 세우다 ‘리베라컨벤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를 지나다보면 누구나 감탄에 젖어 시선이 머무는 건물이 있다. 2013년 완공되어 그해 창원시 건축대상 동상을 수상한 연회 전문 ‘리베라컨벤션’이다. 리베라컨벤션은 평범한 은색 유리 대신 황갈색 띠를 전면 통유리에 입히고 펠을 씌워 고급스럽고 독특한 느낌을 준다. 이 황갈색 띠는 실내에서는 일조량에 따라 시시각각 색이 변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제 디자인도 간결하면서 인테리어 잡지에서 오려낸 듯 세련되게 꾸며져 있다. 이 감각적인 건물의 디자인은 다름 아닌 김태명 대표다.

“수익보다는 예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한 건물이에요. 만든 의도부터가 창원 시민에게 아름다우면서 실용적인 연회공간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 건물은 주변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외관이 창의적이고 아름다우며, 다양한 연회를 치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거기다 질 높은 서비스까지 더해져 최근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한 2015 한국품질경쟁력대상에서 웨딩문화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좋은 의도로, 잘 만들어진 이 건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시민들에게 최고의 연회장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 경남메세나와의 만남

김태명 대표는 2009년 12월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였고, 이듬해 2월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경남메세나와 합포문화동인회, 경남오페라단 그리고 경남장애인협회 네 군데다. 그에게 메세나가 왜 특별할까? 메세나 활동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메세나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제가 처음 경남메세나에 가입했을 때는 초기라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그 뒤로 탄탄하게 성장하여 이렇게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국가에서도 공식적 매개단체로 인정받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사로서, 앞으로 사회봉사 못지않게 메세나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경남메세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김태명 대표와 예술과의 인연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누나 두 명이 현재 전문화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큰 누나인 김태순 작가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현대미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봄 미국 LA의 게티박물관에서 한국의 옛 서책과 한복, 문고리 등을 모티브로 한 ‘조선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어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누나들처럼 그림에 소질이 있을 것 같아 물었더니, 어릴 때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향인 창녕 우포늪의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그가 찍은 우포늪의 사진들을 보니, 제법 사진가의 느낌이 난다.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나 흑백이어도 따스함이 전해온다.

“아름다운 노래 가사 하나에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겐 마음에 와 닿는 그림 한 점이 큰 행복이 되곤 합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그림 한 점 한 점을 즐기다보니, 예술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 동서미술상과의 아름다운 동행

그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메세나 결연으로 이어져, 올해 처음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와 결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예술후원자로 나섰다. 故송인식 관장과 지역미술인들이 이십여년을 정성들여 일구어놓은 동서미술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이 동서미술상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 결연을 맺게 된 것이다. 올해 후원자로서 처음 동서미술상시상식에 가보았는데, 열악하게 치러지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한다. 내년부터 후원 규모를 키워 동서미술상의 위상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열정을 다해 창작활동을 펼쳐가는 지역 미술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 감성경영에 앞장서는 섬세한 리더

김태명 대표는 건물 내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예술성을 가미할 정도로 섬세한 리더이다. 디자인과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맛과 서비스도 지역 최고를 지향한다. 특히 고객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중요시 하여, 늘 ‘사랑과 정성’으로 고객들을 대하도록 교육한다.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리베라 직원들의 친절함과 남다른 서비스의 비결이 여기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인생의 고비마다 큰 도움이 된 ‘이순신’의 리더십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면 꼭 이순신 책을 선물한다. 지금까지 선물한 책만 600여권이나 된다. 그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고 늘 배려하는 마음,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는 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나가는 자력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역사인물을 롤모델로 삼아 몸소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슨 일이든 100도씨 이상의 끓는 마음으로 임하면 녹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도심 속 문화공간을 만들어 대중과 나누고픈 꿈

김태명 대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도심 속에 갤러리를 만드는 것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연과 전시를 열 수 있고, 누구나 격식 없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한다. 그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에 쫓겨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틈을 내어 갤러리에 들러 그림들을 둘러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그림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그림들 중 한 점이라도, 내 눈에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그림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해지면서 스트레스를 잊게 되죠.”

갤러리가 주는 여유와 편안함을 알기에 지역민들과도 그 행복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김태명 대표는 처음 했던 말을 다시 꺼내며 “지금은 메세나가 5%지만 점점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많은 나눔활동들을 몸소 실천해왔기에, 그 말에 더욱 신뢰가 간다. 앞으로 예술후원은 물론, 경남메세나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날개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600여권의 이순신 책을 사람들에게 선물했을만큼 그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가치를 존경하고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있다.



# Interview

㈜부경은 항공기 엔진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최초로 군용항공기 엔진부품의 국산화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친환경 기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부경 김찬모 대표와 손양희국악예술단의 손양희 단장이 만났다.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은 8년 남짓이지만 후원자로서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메세나가 엮어준 행복한 인연을 펼쳐본다.



01



02



03



04

## 열린마음으로 나누는 아름다움 give & give

Writer 옥연숙 Photo 구본수



(주)부경 김찬모 대표  
손양희국악예술단 손양희 단장

- 01 인터뷰중인 (주)부경 김찬모 대표
- 02 제1회 창원국제환경미술제에 참가한 손양희국악예술단
- 03 올해 부경 창립기념일을 맞아, 손양희국악예술단이 축하 무대에서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펼쳤다.
- 04 올해 미국 LA에서 열린 손양희 단장의 공연모습

**#01**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에 자리잡은 ㈜부경 대표이사실에서 김찬모 대표와 손양희 단장이 만났다. 박대성 화백의 100호 남짓한 雨花濟 라는 제목의 한국화 작품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마주하니 마치 한쪽의 그림 같다. 경남에서 드물게 국악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손양희국악예술단장과 김찬모 대표는 오랜 친구를 대하듯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의 눈빛을 나누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김찬모 대표** 비가 와야 할 여름에는 가물어 애를 태우더니 가을 보내고 겨울을 알리는데 웬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는지 오시는 발걸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연말이라 바쁜 일정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손양희 국악인**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대표님의 넉넉한 인품만큼이나 평화로합니다. 대표이사실 밖에 붙은 직원들의 2015년 나의 각오,

회사에 바라는 점,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설문지가 인상 깊네요. 직원들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느끼게 합니다.

**김찬모 대표** 설문지를 통해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체크하고 또 한 많은 대화를 나누며 회사가 바라는 것과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요. 거침없이 건의사항을 말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소신 있게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지요. 대표와 직원 관계의 문턱이 낮아야하는데 이제 문턱이 다 닳아 없어졌으니 기업이든 직원이든 공생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애국자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닌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02**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후원자로 만난 지  
난 3년간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본다. 언제부  
터 서로를 알아보고 그 진가를 인정하고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해진다.

**김찬모 대표** 손양희국악예술단의 활동을 예전부터 알고 있  
다  
가 4년 전 도원 이창호 선생의 소개로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으니,  
올해로 3년차 지원하고 있죠. 3년 전 진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었  
는데 참여자도, 주변 환경도 열악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기에 지원  
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손양희 단장**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를 18회째 개최하는 집행  
위원장으로, 전국규모의 대회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지요. 3년 전  
진해에서 행사를 하는데 장소부터 전국적인 행사에 걸맞지 않아 불편  
했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니 규모도 작았지요. 그때 대회장을 방문하신  
김찬모 대표님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대표님  
이 대회장을 맡으시고,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활성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지요. 전국대회니만큼 지난해 대회참가자가 438명 올해  
는 409명이 참가했어요. 전주대시습놀이도 참가자가 2~300명 남짓  
이고 전국대회가 일반적으로 300~350명 규모이니만큼 김 대표님이  
대회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후원한 보람이 좋은 결과물로 나타났지요.



**김찬모 대표** 주변에는 30년 남짓 꾸준히 후원하는 분들이 있  
습니다. IMF 때는 기업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려웠지요. 그래  
도 묵묵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더 힘을 냈습니다. 문화예  
술 특히 국악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겨있으며, 또한 살아있는 사  
람들의 작품은 가격이 없으니 여유 있는 이들이 도움을 줘야지요. 그  
것이 나의 정신, 얼이고 자존이지요.  
국악과 더불어 어려운 미술가들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메세  
나를 통해 오태환 화백과 박대성 화백을 후원했습니다. 내로라하는 정  
말 대단한 화가들이니, 작품을 판매해서 풍요롭게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힘겹게 작품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이 나라 작가들의  
현실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있습니다.

**#03** 우리의 얼이자 혼인 국악의 후원자 김찬모 대표와 손  
양희 단장의 애창곡이 궁금해 물었다.

**김찬모 대표** 대중가요도 되나요? 제 애창곡은 송대관의 '해돋  
날'입니다. 18년 직장생활에서 사업한 지 27년 됐어요. 사업을 하다보  
면 힘들 때가 많죠. 한창 힘든 때였던 80년대 초 트럭을 몰고 일을 가는  
길에 우연히 송대관의 해돋날을 듣게 됐어요. 그 노래를 듣고 정신이 번  
쩍 들고 힘이 났어요. 노래 가사처럼 짹하고 해돋날 돌아온다는 일념으  
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어요.

**손양희 단장** 예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배고픈 생활도 이겨내며  
오늘을 있게 했으니 노래하는 장르는 다 좋아요. 가요도 좋아해요. 이선  
희 노래를 좋아하고 특히 '아름다운 강산'을 좋아해요. 트로트나 발라드  
도 다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판소리는 제 삶이고 직업이고 생명이니 가  
장 특별하죠. 국악인이니만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9호 예능보유자  
후보로 수궁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당연 '수궁가'가 애창곡18번  
입니다.

**#04**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회공헌이 되어 함께 발전  
해 나가는 손 단장과 김 대표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  
스레 듣는다.

**손양희 단장** 국악계 원로선생님들의 서울로 오라는 유혹을 뿌  
리치고, 창원이 국악에 있어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남았어요. 지역예술의 발전에 한 부분 기여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자 예술인으로서 창작활동에서 한 획을 긋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나 개인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더  
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남의 국  
악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분들이 국악을 접할 수 있게 꾸준히 뿌리내  
려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경남국악 발전을 위한 것이 삶의 보람이자  
목표이니만큼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등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찬모 대표** 기업가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부터 기업가정신으  
로 살아야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경찰은 나  
라를 지키는 방패이자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업가는 애국자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  
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의 철학은 'Give & Give'입니  
다. 조건 없이 베풀 때 상대방도 문을 열고 다가옵니다.  
Give & Give. 진정한 기브야말로 대가성이 없습니다. 손 단장님을 지원  
하는 이유도 그렇지요. 최고의 비즈니스는 대가성이 없이 주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이심전심으로 대합니다. 가슴  
으로 비즈니스해야 합니다. 메세나 정신하고 통하지요.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같은  
금액일지라도 혼자보다 여럿이 나눠야하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나눠야하고 동참해야합니다.  
앞으로 Give & Give 정신을 잃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려 합니다.



두사람의 서로를 향한 존경과 나눔에 대한 열정이 꺾은 날씨조차  
환한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  
앞으로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날들이 사뭇 기대된다.





복면을 벗어도  
여전히 가왕인 그녀  
**뮤지컬 배우  
홍지민** INTERVIEW

Writer 김규남 Photo 구본수

무대 위에서 빛나던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무대 아래에서 배우의 이름을 벗었다. 무대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는 그녀에게서,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한 아이의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무대와 스크린, TV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홍지민. 최근 “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얼마 전 MBC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의문의 여성이 등장했다. 시종일관 코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면서 가왕의 자리에 올랐고, 때로는 듣는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두 번 연속 가왕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바로, 무대와 스크린,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었다. 그녀는 비가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가왕의 자리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깬 비가수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그녀가 가면을 벗어던졌다. 가면을 벗었지만 여전히 가왕다운 면모로 뮤지컬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녀. 무대 위에선 배우로 빛나고 무대 아래선 한명의 사람으로 여전히 빛났다.

### 무대의 꿈 키우던 곳, 내 고향 경남

경남메세나협회 결연식에서 만난 그녀는 매체에서 접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해져 있었다. 바로 얼마 전 한 아이의 엄마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그러했듯, 똑같이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순간이 있었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홍지민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노래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던 중 가면으로 모습을 감추고 무대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를 계기로 감사하게 우울증을 이겨낸 그녀는 조금 더 다른 기회를 찾았다. “아이를 출산한 후 뮤지컬배우로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러던 중 메세나 홍보대사 제의가 와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나 자란 곳, 경남에서 부르는 일이었기에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수락했다. 그녀는 경남 창원의 마산에서 태어났고, 마산제일여고 재학 시절 ‘극단 마산’에서 연기를 배우고 배우의 꿈을 키울 정도로 열정적인 소녀였다. 그 소녀가 자라 지난 1996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 지금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바로 자리매김했다. 풍부한 성량과 가슴을 파고드는 감성, 밝고 당당한 캐릭터로 무대를 장악하는 그녀는 ‘캣츠’, ‘브로드웨이42번가’, ‘드림걸즈’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뮤지컬에서도 제 역할을 해 내면서 뮤지컬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 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세나

“한 10년 전쯤에 학교 마케팅 수업 시간에 메세나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경남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어요.” 홍보대사 제안을 받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된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조만간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그녀가 경남의 문화예술인을 위해 전한 말. “만약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끝까지 그려 나가면 분명히 기회는 와요. 저한테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느 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

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작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때 그녀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로 진학할까 조심스럽게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결연식에서 열린 그녀의 축하공연을 보면서, 그녀가 유치원 교사가 아닌 것이 정말 고마웠다.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과감히 접고 뮤지컬 배우라는 꿈에 직진해 줘서, 하마터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뺨길 뻔했던 그녀의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무대에서 에너지를 불태우는 홍지민이라는 배우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 홍지민 PROFILE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산 제일여고 재학 시절 ‘극단 마산’에서 연기를 배우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 1996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무대에 올라 특유의 밝고 당당한 매력으로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대표 뮤지컬 작품**  
<캣츠>, <넌센스>, <메노포즈>, <브로드웨이 42번가>, <드림걸즈> 등

**대표 기타 작품**  
<온에어>, <미스코리아>, <주먹이운다>, <바람의 전설>, <렛미인>, <엄마의 탄생> 등

**수상이력**  
제15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SBS 연기대상 여우조연상  
2009 골든티켓어워즈 티켓파워상 등





01

02



03

## 2015 경남메세나문화포럼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만나다

Writer 메세나 Photo 윤상희

- 01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 02 고즈넉한 경기전의 모습
- 03 근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성당
- 04 문화해설사의 안내와 함께하는 한옥마을 탐방
- 05 아름다운 전통혼례



04

05

###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 탐방

한옥 돌담을 따라 걸으며 한복집으로 향했다. 전통한복부터 개량한복까지 다양한 한복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고 있으니, 비로소 한옥마을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본격적인 한옥마을 탐방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꼽히는 '전동성당'이다. 사적 제288호로서 호남지역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한국 최초의 순교지를 보존하고 있는 신앙의 요람이기도 하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1410년 창건된 '경기전'이다. 사적 제339호로 지정된 경내에는 국보 제317호인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본전과 조경묘, 전주사고, 어진박물관 등의 여러 유적이 있다. 이중 전주사고(史庫)는 1439년에 설치된 조선 왕조 실록의 보관 장소로서 전쟁중에도 우리 역사를 지켜내어 더욱 의미가 깊다.

### 오목대에서 클래식 연주회

어느새 사람들로 빼곡해진 한옥마을 거리를 빠져나와 한옥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오목대'에 올랐다. 오목대는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 장군이 승전 잔치를 베풀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시절 가야금과 비파소리가 울려 퍼졌을 자리에, 이제 클래식 연주가 한창이다. 메세나스트링앙상블 연주자들이 고풍스러운 기와 아래서 현악 4중주를 연주하였고,

지나가던 관람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며 정자를 가득 메웠다. 노을이 지는 가운데, 현악기의 선율이 노곤해진 여행자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주었다. 이제 해가 누엿누엿 넘어가고, '민속체험'을 위해 각자 마을로 흩어졌다. 모주거르기, 부채만들기, 한지손거울만들기 등 다채로운 민속체험장들이 마을 구석구석에서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우리 선조의 실생활을 경험하고 미학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 마당창극 관람, 그리고 아쉬운 작별

밤이 깊어질수록 저잣거리의 수많은 불거리와 먹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며 쉴 새 없이 반짝였다. 마당창극 관람을 위해 전통문화관을 다시 찾았다. 잔치음식을 푸짐하게 먹은 후 각자 편안하게 자리 잡아 '천하 맹인이 눈을 뜬다'를 관람했다. 이 공연은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명 인간치 대목을 마당창극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송재영, 유재준, 최경희 등 국내대표 명창들이 출연했다. 장면들마다 해학 넘치는 배우들의 열연이 웃음과 감동을 주며 관객 모두 흥에 취해 하나가 되었다.

가을밤의 한기도 잊은 채 공연에 집중하다보니 어느새 한밤이 되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짧은 시간이라 아쉬웠지만, 우리 전통의 멋을 새롭게 발견하고, 느낌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던 한옥마을 여행을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여행을 기약했다.

### 한옥마을에서 만난 전통의 멋

식사 후 다시 십 여분 달려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 도착했다. 마침 혼례마당에서는 금발의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 신랑의 전통혼례가 열리고 있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 한복 외길 30년, The Lahn 김갑란 패션갤러리 우리 옷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Writer 김규남 Photo 김규남

우리 한복만큼 매력적인 옷이 또 있을까. 다양한 색상으로 감각적인 배색을 살려낸 것은 물론 고운 곡선의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다. 지금은 일상에서 밀려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됐지만 한복이 가진 멋스러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한복만큼 감각적이고 탁월한 배색을 지닌 옷이 어디 있으랴. 치마저고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하얀 동정과 깃, 도련과 저고리 배래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 나풀거리는 고름과 주름이 풍성하게 들어간 치마 역시 다른 의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한복만의 고유한 특징이자 매력이다. 굳이 한복에 퓨전을 더하거나 입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멋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는 옷이 바로 한복이다.

요즘에야 한복을 입을 일도, 입는 사람도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한복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의 가약을 맺는 결혼식이나,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 등 중요한 행사에는 어김없이 한복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입을 일이 많지 않고 비싸다는 이유로 한복을 맞추기 보다는 대여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김갑란 한복 디자이너는 한복을 짓는 사람으로서 한복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대여한복은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공장에서 대량생산하고 전통 바느질방식이 아닌 양장재단으로 짓는데, 마치 이런 옷이 ‘한복’으로 인식될까 걱정이 큼니다. 또 요즘에는 신랑신부 한복과 혼주 예복까지 대여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저 몇 시간 입으면 그만인 행사복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정갈한 마음가짐과 신랑신부



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까지 담아내는 것이 한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란 한복 디자이너는 열악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30년 동안 한복을 지으며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소박하게 옷을 물들이거나 느리게 옷을 짓는 한복과 규방공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전통의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그녀는 우리 전통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 대한 보답으로 바느질교실과 염색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습을 통해 30년 동안 익혀온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10년 전 문화센터에서 재능기부 봉사로 바느질 교실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진주에 위치한 ‘The Lahn 김갑란패션갤러리’에서 전통조각보 바느질교실을 열어 수강생들에게 전통 바느질 기법과 소품, 조각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옷을 짓는 틈틈이 작품도 만들어 조각보 회원들과 정기 전시회를 열고 전통공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The Lahn 김갑란패션갤러리’에 가면 그녀만의 솜씨가 깃든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선보인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의 멋스러움을 알릴 수 있는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간직한 그녀. 아직도 첫 한복을 지었을 때의 설렘을 잊지 못하고 정갈한 마음과 염원을 담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 나가고 있다.



# 직장인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도전 구북예술촌에서 가족초청 음악회를 열다!

Writer 허준 Photo 진성빈

(주)센트랄과 결연을 맺고 있는 경남A&B오케스트라는 2014년 창단한 아직은 새내기 단체다. 매년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단원 전원이 직장인 아마추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창단 때부터 주목받았다. 주경야음(晝耕夜音).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음악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열정이 지난 10월 다시금 불타올랐다. 17일 토요일 오후 마산 외곽의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구북예술촌에서 가족초청 야외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다. 연주를 마치고, 허준 지휘자와 단원들이 설렘 가득한 소감을 보내왔다.

## 무대에 서기 전의 떨림

A&B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음악회 몇 시간 전부터 모여 휴먼지로 더러워진 의자와 주변을 정리 하느라 분주했고, 곧 시작될 연주에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생각에 벌써부터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연주자나 아마추어나 무대에 서기 전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A&B오케스트라는 경남지역의 직장인 아마추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연습을 시작하여 올해의 메인 연주인 제2회 정기연주회(12월 2일 19:30 창원성산아트홀대극장)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초청 야외음악회는 정기연주회 리허설 겸 가족들을 초청하여 가을의 풍광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12월 정기연주회를 목표로 3월부터 시작된 연습은 어찌 보면 아주 이른 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라는 이름 때문에 연습을 늦게 시작할 수도 없었고, A&B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클래식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서 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지휘자의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긴 연습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들어 하는 단원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기에도 힘들었을텐데 매주 수요일 저녁을 오케스트라 연습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단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관객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동의 무대

오후 4시, 구북예술촌 윤환수 총장님과 A&B단원 가족들, 그리고 구산면 주민들을 관객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까지 울려 퍼진 A&B오케스트라의 음악 덕분에 이날은 10월의 가장 멋진 날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트럼펫 단원인 바리톤 도현경씨의 노래는 연주 수준을 한껏 높이고, 모든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석양이 펼쳐지는 가운데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을 단원들이 차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줌으로써 관객들은 가을의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인곡인 시벨리우스의 '핀란드리아'의 웅장함과 열정은 A&B오케스트라의 모습을 꼭 담아 관객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단원들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늘 직장생활에 지치고 무료한 삶을 보내다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나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직장에서 일의 능률이 많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또 평생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무대에서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지휘자로서 A&B오케스트라의 존재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자 허준

##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는 기쁨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더불어 아름다운 선율까지. 자연과 음악은 저의 지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월등히 향상된 경남A&B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즐거워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흡족하고 뿌듯했습니다. 2004년 10월 23일, 11년 전 오늘이 생각납니다. 저의 반쪽을 맞이한 그 날 우리는 후배들로부터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에 단원 중 한 명인 바리톤 도현경씨의 맛있는 음성을 통해 우리의 결혼을 다시 한 번 축복받은 듯하여 우리 가족에게 더 없는 기쁨과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센트랄 총무안전환경팀 정광익 과장

##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연주 곡의 제목처럼 어느 멋진 날에 마산 구북예술촌에서 7개월간 매주 연습했던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황금빛 버를 보며, 제 마음에도 황금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만나며 회사에서의 '과장님', '대리님'이 아닌 한 가정의 아버지, 딸의 새로운 모습 또한 볼 수 있어서 다시금 친밀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오씨티알 상품기획팀 최경진 사원



# 결연단체활동후기 - 한마음 오케스트라 천사들이 건네주는 고운 소리의 말들

Writer 김혜연 Photo 윤상희, 한마음 오케스트라 공연사진 제공



에스에이에스주식회사와  
올해 처음 메세나 결연을 맺은  
한마음 오케스트라는 도내  
지적·발달장애 청소년들로  
이뤄진 음악단체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희망이룸 연습실로 찾아가  
늦가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천사들을 만났다.  
예술로서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아이들과 대가 없는 재능기부로  
삶의 기쁨을 찾는 선생님들.  
그 소중한 만남의 현장을 함께  
찾아가보자.



며칠 동안 쏟아진 비와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날 창원 사람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희망이룸을 찾았다. 실내로 들어서자 낯선 이에게 눈빛을 반짝거리며 서로 먼저 나서서 정답게 인사를 건네는 장애우들, 추워서 땀을 흘리며 웃음을 흘리며 풀어버릴 만큼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편하고 따뜻해진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지가 언제던가.  
수업시간이 다가오자 자신들이 직접 의자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각자 맡고 있는 악기를 챙기기도 하면서, 곧 진행될 수업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벌써 궁금해진다. 몇 년 전부터 함께 모여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여 작은 연주회를 줄곧 열어온 이 친구들의 꿈은 사실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다. 물론 장애우들의 재활치료 목적에

서 비롯되었지만, 늘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좀 더 긍정적이고 뜻 깊은 일을 함께 해보고자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부족한 지원금이나 이해 못 하는 편견의 시선에 좌절도 많이 겪었지만 선생님들의 부단한 정성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도 감히 자부한다.  
한마음 오케스트라는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3개 파트 32명의 발달장애 청소년 단원들과 11명의 예술봉사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잔소리 하지 않고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단번에 마음을 읽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지만, 어쩌면 그동안 서로가 보낸 힘든 시간과 땀이 준 노력이 쌓여 비로소 만들어진 단단한 믿음의 결과물은 아닐까.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하기에 한 번 틀리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실수를 거듭해 몇 번이나 반복연습을 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아이들 스스로 잘 하겠다는 굳은 의지에 의해 몇 번이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마음이 놓인다고 선생님들은 말한다. 지휘자 선생님이 잠시 호흡을 고르는 사이 아이들에게 연습하기 싫진 않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아니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연주회를 보러 오신 손님들에게 기분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요." 노력하는 만

큼 결과가 보인다는 말, 여기서는 강요하지 않아도 행복한 답인 줄 이미 천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희망이룸에는 이곳에서 같이 공부했던 중증 장애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3명이 취직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았으니 앞으로 여건만 허락된다면 많은 장애우 친구들을 고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나아가 2018년까지 10명의 발달장애인을 예술 강사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니 말만 들어도 참 멋진 목표가 아닌가.

## 감동의 네번째 정기 연주회

12월 15일 저녁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한마음 오케스트라의 네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프로그램은 '오페라의 유령' 'You Raise Me Up' '쇼스타코비치 왈츠' 등 대중적이고 친근한 곡들로 구성되었다.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한국 한국 최선을 다해 연주했고,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 무대를 위해 아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했음을 알기에, 아이들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가끔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것은 연주자들과 관객들 사이에 이루어진 따뜻한 교감이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아직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무대로 앉아 어른들의 도움 속에,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을 차임벨로 연주하는 장면에 이르자, 관객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천사들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노래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희망이 쏟아져 나왔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끝으로 공연이 막을 내렸다. 연주 내내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또는 가슴 졸이며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아이들의 연주에 보답했다. 아이들은 그동안 노력해온 수많은 시간과 눈물의 결과물을 무대 위에 올렸지만 관객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를 듣지 못하고 때로는 그 박수에 보답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이 푸르게 뻗어나갈 미래에 무슨 걸림돌이 될 것인가. 이들이 큰 소리로 밝힌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무대로 펼쳐고 나갈 원대한 꿈이 있기에 조금의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듯이 말이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힘을 합쳐 멋지게 만들어낸 즐거운 소리의 언어들, 귀 닫고 눈 닫고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부호에 맞추어 지구촌 어느 곳이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대와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고 싶다.

01 뜨거운 갈채를 받았던 제4회 정기연주회  
02 연습실에서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경남메세나협회는 올해 3월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고 메세나의 발전을 위한 매개사업들을 새롭게 시행했다.

Intermediation Business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가을밤을 물들인 화합의 하모니

Writer 옥연숙 Photographer 구본수

11월 5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제1회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열렸다.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는 경남메세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의 감동을 나누고자 창원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번째 메세나 콘서트다.



초청대상은 도내 상공인들과 그 가족들 및 경남도민으로서, 시작하기도 전에 2층까지 객석이 꽉 찰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최재호 회장은 “음악을 매개로 지역 상공인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며 “열심히 준비한 이번 공연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관객들에게 개최소감을 전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날 연주회는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경남메세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국내 최정상급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정의근, 뛰어난 가창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가수 신호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연주자들이 메세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가을밤 울려 퍼지는 천상의 소리 강렬하고 화려한 단풍빛깔로 수를 놓았다

지휘자 김인호가 이끄는 경남메세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레 춤'과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4악장'을 들려줬다. 바카날레는 고대로마에서 술의 신 바쿠스를 기리는 축제로, 축제의 화려함과 경쾌함을 묘사한 춤곡답게 연주회 서막을 신나게 열었다.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새 시대의 도래를 표현하듯 힘차고 웅장한 연주로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영화 '조스'의 배경음악으로도 유명하며, 제목은 몰라도 야구장에서 목청껏 외쳤던 익숙한 그 멜로디다. 땀방 터지는 금관악기 소리들이 일상에 지친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었다. 소프라노 이화영은 '꽃구름 속에', 테너 정의근은 '고향의 노래' 등 우리 가곡을 불렀다. 박두진 시에 이흥렬이 곡을 쓴 '꽃구름 속에'의 가곡처럼 꽃바람이 마을마다, 마음마다 불어와 복사꽃 살구꽃 환한 마음으로 꽃향기를 풍기는 듯 하였고, 이수인 곡의 '고향의 노래'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먼 고향집, 함박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에도 그저 따뜻할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게 했다.

이어 대중가수 신호범은 '난 널 사랑해'로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고 환호를 받으며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는 워트와 재치가 넘쳤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앵콜곡으로 응답했다. 관객이 함께 노래하고 열띤 호응을 보여준 덕분에 모두가 즐기는 콘서트가 되어 어떤 악기도 인간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없음을 느끼게 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천상의 소리들은 이 계절의 단풍잎만큼이나 색색의 아름다움으로 수를 놓았다. 음악이야말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렬하고 화려한 소용돌이다. 성산아트홀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 음료대에 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와 비스킷에 고마움을 표하고, 연주회가 끝났지만 그 여진이 남아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했다.

“직장생활에 쫓겨 공연장은 꿈도 못 꾸는데, 회사의 추천으로 오랜만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어느 관객의 이야기처럼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로 따스하게 마무리되었다. 서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가을밤. 귀에 익숙하고 편한 음악으로 잔잔한 여유와 즐거움을 갖게 해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경쾌하다. 가을밤의 콘서트와 차 한 잔의 여유는 각자의 마음속을 감미롭고 평화롭게 어루만졌다. 서로 취향은 다르지만 콘서트의 어울림이야말로 소통이고 화합이다. 새로운 시작을 연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경남메세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Writer 메세나 Photo 김성주

경남메세나협회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극장에서 '경남메세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경남메세나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고 처음 개최하는 매개사업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창원대학교와 공동주최했다.

최재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업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예술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경남메세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메세나 활성화에도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원문성대학 박현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이병훈 교수는 '경남메세나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경남메세나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사업현황과 성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이병훈 교수는 "경남메세나협회가 2007년 79개 회원사, 10개 팀 결연으로 시작하여, 2015년 현재 217개 회원사를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현재까지 총 591개 예술단체를 후원했고 누적 예술지원금이 120억 원을 넘기며 경남의 대표적 예술후원단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며, "대기업 참여, 메세나관련 연구 및 홍보활동, 대내외 교류활동, 메세나사업에 대한 피드백 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메세나 참여기업 대상 확대, 협회사업의 다각화, 산·학·관 네트워크 강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발전방안으로 꼽았다.

토론회로 참여한 (주)부경 김찬모 대표이사는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강화를 통해 메세나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및 메세나 기업에 대한 인증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창원음약협회 노주식 회장은 기존 제조업체 중심에서 예술마케팅 효과가 높은 백화점, 금융기관, 호텔 등 서비스 업종으로 결연기업을 확대하

여 기업과 예술단체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김용대 전략기획실장은 경남에서 메세나 활동이 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예술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므로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확대해야하며, 메세나 발전을 위해 메세나 전문성 강화, 문화경영과 예술경영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안태혁 교수는 "메세나 활동은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며, "예술단체 위주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면 경남지역의 경제와 예술분야 모두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펴냈다.

마지막 토론회로 나선 경남발전연구원 한상우 박사는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나 수요부분을 연구·조사하여 그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하고, 메세나 수혜대상의 사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여부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한다"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2016년도 사업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메세나사업 연구보고에도 적극 반영하여 경남메세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 경남 예술지원 사례집 발간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소재 기업의 예술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그중 모범사례를 선정, 책으로 발간한다. 기업들의 우수한 메세나 사례들을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메세나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술지원 사례집에 실리게 된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는 총 19개 중소기업으로서, 경남의 예술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경영을 실천해온 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예술지원 사례집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지역공헌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기업별 특성과 부합되는 전문적인 문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다. 또한 참여기업은 문화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 기업에 귀감이 되어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례집의 구성은 기업 소개, 기업의 문화예술 포함 사회공헌 활동 내역, 문화경영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현황, 예술단체 후원현황, 앞으로의 메세나 관련 계획 등으로 꾸며진다.

# 예술단체 모니터링 및 메세나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메세나 사업의 점검과 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은 지난 2008년과 2013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올해 메세나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예술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메세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또한 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메세나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메세나 성과를 짚어보고,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메세나 연구보고서는 앞으로 외부에는 메세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사업기획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5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Writer 김규남 Photo 구본수

- 01 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홍지민과 최재호 회장
- 02 경남메세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
- 03 기업인과 예술인이 서로의 목에 머플러를 걸어 주며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흔히 문화예술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에 고독한 길이라도 묵묵히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문화예술인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업인들이, 경남에는 이렇게나 많이 있다. 기업인과 예술인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약속의 머플러를 걸어주는 결연식에서 참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

지난 9월 1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경남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2015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기업과 예술단체가 서로의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00개팀 이상 결연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 기업과 예술단체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회가 설립되고 기업과 예술단체의 매칭펀드 사업이 시작되면서 매해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경남메세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국내 제1호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기업과 지자체의 역할로만 남겨졌던 문화예술 후원 사업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더불어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남의 문화행사가 더욱 풍성해 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연식에 앞서 경남메세나협회 최재호 회장은 이 사항을 언급하면서 "메세나의 태동과 발전에 힘써 준 경상남도과 기업인, 그리고 예술인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경남에 메세나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대신해 결연식을 축하해 주기위해 참석한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여기 모인 기업은 제대로 돈 쓸 줄 아는 기업인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경남의 구석구석에 문화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좋은 활동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부지사는 덧붙여 "기업하기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여전히 100개 기업이 참가해 준 덕분에 경남이 산업화의 선두주자인 동시에 예술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멋진 지역이 될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 청실홍실로 가약을 맺다

결연식의 백미는 기업인과 예술인이 서로의 목에 약속의 의미로 청머플러와 홍머플러를 걸어주는 머플러 교환식이다. 예로부터 청실홍실은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서로 간의 굳건한 약속을 의미한다. 최재호 회장과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서로에게 머플러를 걸어주는 것으로 결연식이 시작됐다. 이어 기업과 예술단체 대표가 마주보고 서로에게 머플러를 걸어주면서 후원을 약속했다. 올해 처음으로 결연을 맺게 된 팀부터 메세나 창립 이래 지금까지 8년 동안 꾸준히 결연을 이어온 팀까지, 큰 무대가 비좁게 느껴질 만큼 많은 기업인과 예술인들이 자리를 빛냈다. 머플러 교환식이 끝난 후에는 서로 손을 교차해 잡고 온기를 나누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매년 결연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덕분에 한 장의 사진에 다 담으려면 서로 어깨를 맞닿아야 할 만큼 힘들어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풍성해지는 장면이었다.

### 무대를 빛내는 뮤지컬배우 홍지민, 홍보대사가 되다

결연식과 함께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마산출신 뮤지컬배우 홍지민씨가 위촉패를 받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홍지민씨는 마산제일여고 시절 극단마산에서 연극을 배울 정도로 무대에 대한 열정이 높았고, 오랜 노력 끝에 무대 위에서 빛나는 뮤지컬 배우로 성장했다. 위촉패를 받은 그녀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중 홍보대사 제안을 받아서 무척 기뻐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에 기꺼이 수락해준 홍지민씨를 위해 통영의 누비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클러치를 선물해 큰 박수를 받았다.



# 2015 GYEONGNAM MECENAT AWARD

Writer: 옥연숙 Photo: 구본수



## 예술을 사랑한 당신, 올 한해도 수고했어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인들의 따스한 손길이 경남 문화예술에 온기를 불어 넣었기에 이번 겨울은 결코 춥지 않다. 서로 고마움이 담긴 덕담을 주고받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예술 사랑을 약속하는 축제의 시간, '2015 경남메세나대회'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막을 올렸다.

눈송이들이 흩날리며 겨울의 문을 연 12월 2일, 창원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경남메세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기업과 유관기관장, 문화예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08년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경남메세나대회는 경남지역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방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는 메세나대상 시상식과 기업과 예술이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시간으로 다채롭게 치러진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최재호 회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인사말씀과 축사가 있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인사말을 시작한 최재호 회장은 "창립 8주년을 맞은 경남메세나가 3년 연속 기업·예술단체 결연 100개 팀을 넘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올 한해만 예술후원금 20여억 원을 달성했다"며 예술지원에 앞장 선 회원사와 도내기업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창작여건이 열악한 곳에도 메세나의 혜택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도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해소 및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가 중요하며, 특히 기업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원과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영예의 메세나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김도기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매년 다양한 예술단체들을 후원하며 지역예술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준 광동종합건설(주)(대표 최광주)이 수상했으며, '문화경영상'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을 6년째 후원하고, 문화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화성G&(주)(대표 김원철)가, '문화공헌상'은 지역 문학의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AMS(주)(대표 전종인)가 수상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주)고구려(대표 임채현)와 경남국악관현악단 휴(단장 송철민)는 'Arts&Business'을 수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계를 이끌어갈 예술유망주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문화예술 영재상'은 강수연(성악·부산예술고등학교3), 이채원(바순·서울예술고등학교2), 박예림(판소리·산청 덕산초등학교6) 학생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 수여된 상패는 천원식 작가의 '소통의 길'라는 조각 작품으로, 기업과 예술을 잇는 메세나(Meoenat)의 영문 머리글자 "M"를 모티브로 하여 끝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꼬비우스 띠의 형상을 조형적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 풍성한 축하공연

시상이 끝나고 특별공연이 이어져 축하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어린나이에 놀라운 실력으로 국악천재라 불리는 박예림 학생은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 부다'를 맛깔스럽게 소화해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문연주자 못지않은 다양한 수상과 협연경험을 가진 이채원 학생은 바순으로 섬세하고 묵직한 연주를 선보여 초겨울의 설렘을 안겨줬으며, 흥겨운 세계적인 소프라노를 꿈꾸는 강수연 학생이 왈츠풍의 이태리가곡을 사랑스럽게 불러 절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축하공연 무대에서 서울시뮤지컬단이 인기 뮤지컬들의 정수를 모아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였다. <렌트>(그리스)<겜블러>(노르담 드 파리) 등의 명장면들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오랜 역사와 창작경험을 가진 국내최고의 뮤지컬단으로서 면모를 드러냈다.

## 경남메세나를 위하여!

200여 참석자의 힘찬 건배사로 만찬이 시작되었고, 오가는 웃음과 환담 속에 정다운 밤이 깊어갔다.

2015년의 경남 문화예술을 정리하는 '2015 경남메세나대회'는 이렇게 다가오는 새해, 더 큰 희망을 꿈꾸며 막을 내렸다.

- 01 2015 메세나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 02 문화예술 영재상을 수상하는 국악꿈나무 박예림 학생
- 03 문화예술영재상 수상자 이채원 학생의 바순 연주
- 04 문화예술 영재상 수상자 강수연 학생의 성악공연



# 2015 GYEONGNAM MECENAT AWARD 영광의 얼굴들



**대상**  
광득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광주**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득종합건설(주)은 1995년 창립 이래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2013년부터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마산여성합창단·경남미술협회·성산미술대전 3개 단체와 손을 잡았다. "올해는 그간 후원해 왔던 마산여성합창단이 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 보람을 느꼈다"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문화예술 지원에 앞장서고 또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내 문화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메세나인상**  
유전공업(주) 대표이사 **류재기**

삼성중공업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유전공업을 비롯한 5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 류재기 대표이사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만큼 문화예술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아트필연구회'를 설립 지원했고, 2013년부터는 메세나 결연을 성사시켜 재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개인초대전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강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40회 이상의 실험적인 전시회를 열어 경남의 문화수준을 높였다. 창원예총과 결연을 맺어 예술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문화동행' 행사를 열었고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경남오페라단 이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상소감으로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술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와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문화경영상**  
화성G&(주) 대표이사 **김원철**

1994년 설립된 화성G&(주)는 국내 승강기 부품업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건설한 기업이다. 김원철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음악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과 결연을 맺어 6년째 후원하고 있다. 김원철 대표는 예술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예술적 경험과 감성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며 문화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도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매년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장애인시설 문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임직원 단체공연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다. 김원철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으로 "이 무대에 오르면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과 임직원들이 함께 했던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른다"며 직원들과 교향악단 김호준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문화공헌상**  
우수AMS(주) 대표이사 **전종인**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우수AMS(주)는 1983년 설립 이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품질,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전종인 대표이사는 기업이 성장가도를 달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어한다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여 지역 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다. 특히 문학에 애정이 많았기에 경남문인협회, 경남여류문학회 등 지역의 다양한 문학단체들을 후원했고, 문학행사들에 참여하여 시 읽는 CEO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시낭송, 시극, 수필극, 무용 등으로 꾸며진 '시를 낭송하는 사회'라는 문화행사를 사육마당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우수AMS 전종인 대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기에 그 재능을 맘껏 발휘하고 지역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술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rts&Business 상**  
(주)고구려 대표이사 **임채현**  
경남국악관현악단 휴 단장 **송철민**

창원진동면 태봉마을에 위치한 (주)고구려는 선박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평소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 고구려는 나눔과 상생에 큰 가치를 두고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메세나를 적극 실천해 오고 있다. 1998년 창단한 경남국악관현악단 휴는 전통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고 있는 연주단체로서 유네스코 초청공연을 비롯하여 우리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해왔다. 2010년 임채현 대표가 대금을 배우면서 경남국악관현악단 휴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주)고구려와 경남국악관현악단 휴는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에 대한 돈독한 믿음과 애정으로 메세나 결연을 이어와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여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와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갈 국악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특별공로상**  
경남은행장 **손교덕**

지난 2006년 지방은행 최초의 공익재단인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아동,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경남메세나협회 창립의 주역으로서 경남오페라단, 통영국제음악제, 이병주 문학제, 고성오광대 등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단체들을 후원하여 경남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키워냈다. 경남은행은 누구나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무료관람행사 등으로 지역민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점 1층의 아트갤러리는 예술인들과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주는 특별한 문화복합공간이다. 이처럼 경남은행은 오랜 세월 경제적, 사회적 동반자 역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도해오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후원으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문화 나눔사업

Writer 메세나, 김규남  
Photo 메세나, 김규남

##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공연, 즐거운 나눔티켓

경남도민과 문화예술 향유로 행복한 문화경남을 만들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남메세나의 문화나눔 사업이 올해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공연을 개최하여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소통했다. 경남메세나의 문화나눔 사업은 문화소외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제공하는 '행복한 나눔공연'과 공연이나 전시티켓을 제공하는 '즐거운 나눔티켓'으로 나누어진다. 올해의 나눔공연은 경상남도의 후원으로 10회 개최했고, 나눔티켓은 3회 개최해 이천이백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했다.

사업명	일자	장소/배부처	대상	관람인원	내용
행복한 나눔 공연	5.8	창원성산노인복지관	지역어르신	300명	중창, 가야금 연주
	11.13	고성동중학교	학생, 교사, 지역민	200명	해설이 있는 오페라
	10.26	진해희망의집	청소년	100명	해설이 있는 관현악
	11.19	의령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직원	200명	민요, 색소폰 등
	11.21	창원경상고	수능생, 교사	300명	관악, 스포츠댄스 등
	12.8	창원 아름다운학원	장애인, 직원	200명	관악6중주
	12.12	창원성심원	어르신, 지역민	250명	성악, 관현악, 합창
	12.17	함안새길동산	어르신, 직원	200명	관악6중주, 풍물
	12.23	창원해강마을	거주장애인, 직원	100명	해설이 있는 관현악
12.28	창원호텔	다문화가정	100명	해설이 있는 관현악	
즐거운 나눔 티켓	4.7	경남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정청소년	100명	합창공연
	11.4	창원여성의집	가정폭력피해가족	50명	클래식공연
	12월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청소년 등	100명	연극공연
합계			2,200명		

문화나눔 사업은 메세나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을 잘 모르고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좋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경남 곳곳에 퍼져나가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하고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경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 나눔공연에서는 관람대상을 '학생'으로 넓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화소외지역인 고성 거류면 동중학교에서 개최한 힐링콘서트, 그리고 2016년도 수능을 치른 고3수능생과 예비수능생들을 위해 경상고에서 개최한 fun fun한 콘서트 현장으로 가보자.

## 중학생들을 위한 친절한 오페라

가을의 운치가 물씬 느껴지던 11월 13일 오후, 경남메세나는 고성군 거류면 고성동중학교에서 힐링음악회를 열어 소외지역 학생들과 뜻깊은 문화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경남메세나가 주최하고 아토오페라앙상블이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고성 동중학교 전교생 및 인근의 거류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강당에서 열렸다.

국내의 실력과 성악가들로 구성된 아토오페라앙상블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과 영상을 가미한 완성도 높은 오페라 갈라 공연을 선보였다. 드레스와 연미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성악가들은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가곡 '산촌', 대중가요 '행복을 주는 사람',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 오페라는 물론 우리 가곡과 뮤지컬 인기곡들을 생생한 표정과 몸짓,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주어 학생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브라보' '올레' 같은 환호를 외치며 매너 있는 관람태도를 보였던 학생들은 공연 후에도 익숙한 곡들을 따라 부르며 여운을 즐겼다.

이번 공연을 공동주최한 고성동중학교 한신자 교장은 "고성에서 이렇게 멋진 음악회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멀리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이번 음악회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을 기약했다.

## 수능생을 위한 뽀뽀(Fun)뽀뽀(Fun)한 콘서트

수능시합이 끝난 경상고등학교 교정은 다른때보다 활기차 보였다. 수능생들은 지난 1년간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던 '수능생'이란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이 날만은 무대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지금 이 순간'을 즐겼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주관하고 ㈜무학이 후원하는 '수능생을 위한 뽀뽀(Fun)뽀뽀(Fun)한 콘서트'가 경상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공연에 앞서 손기원 교장은 "학교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실히 즐길 수 있는 경상이니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라며 마이크를 학생들에게 넘겼다. 학생들의 "놀 때!"라는 활기찬 대답과 함께 콘서트의 첫 무대가 열렸다.

공연의 첫 무대는 CWNU금관앙상블의 연주로 시작됐다. 관악의 매력을 알리는 음악부터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팝까지 들려주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세세한 표현력을 가진 성악가들의 무대와 댄스스포츠 공연, 경쾌하고 강렬한 전자음악 공연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각 연주자들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만한 경쾌한 곡을 선보여 남심을 흔들며 환호를 자아냈고, 사춘기가 지나 변성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남자들의 떼창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무대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방송댄스팀의 Kpop공연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던 학생들의 이목을 무대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멋진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하고 이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니, 경상고등학교 학생들은 놀 때 제대로 놀 줄 아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향해 달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경상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무대를 달궈준, 경남을 이끌어갈 다섯 팀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낸다. 마음껏 웃어도, 마음껏 소리 질러도, 더 없이 좋은 날이었다.

01 의령노인복지센터에서 CWNU관악단의 경쾌한 공연

02 고성동중학교에서 멋진 오페라갈라공연을 펼친 아토오페라앙상블

03 경상고 수능생을 위한 Fun Fun한 콘서트

# 문화예술 강국을 꿈꾸며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신제남



## 구엘공원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문화와 관광의 도시다. 이 매력적인 도시에는 1882년부터 현재까지 짓고 있는 성가족성당(Sagrada Familia)과 구엘공원(Park Guell)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르셀로나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했으며, 도시의 재정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었다. 그것이 바로 천재 건축가 가우디와 후원자 구엘의 만남이 이뤄낸 결과다. 예술가와 후원자의 만남은 한 도시, 한 국가에 엄청난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으며 시민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이 되었다.

최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제18회 정기전을 다녀왔다. 꽤 먼 길이었지만 전시장을 꼭 채운 150호 크기 이상의 작품들을 보는 순간 피로를 잊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2013년에는 100호 이상 대작전을 했었는데 불과 2년 사이 더 큰 도전을 하여 이렇게 멋진 성과를 거뒀다니,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작을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열정, 재료가 들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경남 작가들의 도전정신과 더불어 기업의 후원, 즉 메세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전시가 열릴 수 있었다고 본다.

메세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메세나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로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경남에서도 메세나가 창설되었다. 기업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후원받는 예술단체는 말할 것도 없다.

경남메세나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창립 8주년을 맞이한 현재, 21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지역 예술단체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매우 다채롭고 반가운 현상이라 느낀다. 이는 경남지역 예술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며 창작의욕을 솟구치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타지역 작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메세나의 활약에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먼 오래전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문은 메세나를 실천한 귀족가문으로 고귀한 책무, 즉오블리스 노블리제의 효과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보여준 원조 메세나의 사례이며 그 결과 오늘날의 문화 강국, 관광 대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선진지명의 기업이라 하겠다.

보라!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의 위용과 찬란한 명작들의 향기를....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성가족 성당을 건축한 가우디와 후원자 구엘의 기막힌 인연, 네델란드의 천재화가 고흐를 만들어낸 동생 테오의 열정. 작가와 후원자의 사이를 사사로운 관계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후대에 이르러 한 도시 한 국가의 경제적 활성화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이제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십위 권을 넘나들고, 세계 일위를 달리는 분야가 어디 한 두 개인가! 하지만 문화분야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경제선진국에 걸맞

은 문화강국의 면모도 이제는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돌아보면 평생의 길을 예술로 보낸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개인의 영달을 뒤로 한 채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주저 없이 국가와 국민에게 기증하고 떠난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이 땅의 예술가들은 국가의 미래에 잠재적 명품 브랜드라고 감히 외치며 예술인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죽어서 유명해지기 보다는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작품 활동을 원 없이 하고 싶은 것이 작가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메세나를 통한 예술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수십배 아니 수백배의 보답으로 사회에 환원된다. 예술인들은 경제적 풍요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된다면 창작활동 자체에서 희열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뿐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구엘을 만난 가우디처럼 작가들의 창작성이 제대로 꽃을 피워 우리나라도 문화예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터널을 지나 종로쪽으로 가다보면 명동성당 쪽으로 아주 오래된 삼일로 창고극장이 있는데 극장건물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참으로 멋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예술이 가난을 구원하고 나라의 경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주)무학	(주)고려철강	무림페이퍼(주)	(주)신한물산	(주)창원자동차학원
광득종합건설(주)	고운치과병원	문운수치과의원	(주)씨노텍	청아의료재단
경남오페라단	광신기계공업(주)	미르치과의원	(주)애드테크	초심공업(주)
경남은행	(주)구구	미조종합건설(주)	(주)에스에이치아이	최익수의원
농협경남본부	(주)국제전기	미즈맘 여성병원	에이스브이	츄고쿠삼화페인트(주)
도남실	그린산업(주)	법무법인미래로	영광산업(도의회)	(주)케이씨
삼원테크(주)	그림갤러리(주)	(주)베스트엔드베스트	(주)영남엘피씨	(주)코텍
(주)센트랄	(합자)금강전기공업사	(주)보강기업	영민테크	쿠쿠홀시스(주)
우수AMS(주)	금강중기	(주)부경	(주)영신화공	태광실업(주)
유전공업(주)	금성이노텍(주)	부산교통(주)	(주)영일정공	(주)태완정공
(주)인산가	(주)금솔개발	(주)부일이엔씨	(주)영진테크	(주)태현메가텍
임경숙	(주)기산산업	(주)부평디엔피	(주)영창기업	(주)포스텍
(주)한국아나세	기선산업(주)	(주)복성산업	에인여성병원	풀만호텔
청호산업개발(주)	김선경외과의원	비에이치아이(주)	(주)오곡산업	피케이벨브(주)
(주)ONE	김순태치과의원	(주)사리	오션커뮤니케이션즈	하이에어코리아(주)
경원벤텍(주)	(유)김해공영	(주)산호수출포장	(주)옥산아이엘티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김도기	낙우산업(주)	(주)삼보산업	원 한의원	한국소니전자(주)
리베라컨디션	남명산업개발(주)	삼우금속공업(주)	원광산업석재	(주)한국자연환경
범한산업(주)	남양매직(주)	삼원동관(주)	(주)웰템	한국정기공업(주)
산골농장	(주)네오씨티알	(주)삼전건설	유니온엔지니어링	한국제강(주)
신화철강(주)	대경건설(주)	삼정기업	유림건설(주)	한국태양유전(주)
원광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삼정터빈	(주)유림철강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서일준	대방스페셜스틸(주)	삼흥열처리	윤한의원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한국민예총경남지회	대선주조(주)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해성메탈(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대신금속(주)	(유)상화도장개발	의료법인성남의료재단	해수종합건설(주)
한림건설(주)	(합)대신전기공업사	창원복지원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현대공영(주)
(주)현대단조	대한전선전기(주)	(주)서영시스템	사보이호텔	(주)현대기업
화성G&I(주)	(주)대호엠아이	선린자모의원	(주)이앤티	(주)해동
(주)화영	(주)대호테크	성부가스산업(주)	(주)이우	호성
(주)화인테크놀로지	(주)덕광중공업	(주)성우	인산죽염(주)	(주)호텔인터내셔널
the큰병원	(주)동구기업	(주)성환금속	인화정공(주)	흥기종합건설(주)
가야BBS(주)	동명다이아몬드	(주)세복	일림나노텍(주)	화이트치과
(주)국민종합건설	동양특수금속(주)	세아창원특수강	(주)장생도라지	화일종합건설(주)
강산기술검사	(주)동오프랜지	(주)세양정공	(주)장성E.P.S	(주)화영
가제레미콘(주)	(주)동은화학	(주)세호테크	(주)장한	(주)화인에이티씨
가제시문화예술회관	동인하이텍(주)	속편내과	정남종합건설(주)	(주)팬코리아중공업
가제컨벤션웨딩부페	동한산업(주)	승진기계(주)	(주)정문애드테크	(주)환웅정공
경남개발공사	두남화학	시영건설(주)	주용테크	흥일기업(주)
경남스틸(주)	디씨엠(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중앙건설(주)	PS엔터테인먼트
경남신문	디케이락(주)	신대양(주)	(주)중앙금속	STX조선해양(주)
경남자동차판매(주)	라온산업개발(주)	신동방산업(주)	중원종합건설(주)	STX엔진(주)
경원여객자동차(주)	마산정안과	신요푸드시스템(주)	(주)지에스비	
(주)경한코리아	(주)마창대교	(주)신우공업	창원상공회의소	
(주)고구려	명제한의원	신창기계	창원서울이비인후과	



#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유일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_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공간, 티켓구매, 직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직원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단체워크숍** \_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남예술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돕습니다.

##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_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등을 지원합니다.

**어울림과 소통전** \_ 기업과 미술가가 매칭을 하여 기업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 \_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_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_ 문화소의 이웃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넓히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움 나눔티켓** \_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관람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 연구 및 홍보 사업 Development

**홍보지 '경남메세나' 발간** \_ 연2회 발간하여 메세나협회 사업소개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_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_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_ 경남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메세나필하모닉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_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_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합니다.

##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_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시행** \_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신규사업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기업사랑 메세나음악회** \_ 지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예술의 대중화와 기업의 예술친화에 기여합니다.

**메세나포럼 개최** \_ 메세나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메세나 발전방안을 마련합니다.

**메세나기업 사례집 발간** \_ 메세나 홍보와 확대를 위해 기업의 우수한 메세나 사례들을 조사하여 책으로 발간합니다.

**예술단체 모니터링 및 연구보고서 발간** \_ 예술단체의 발전을 돕기 위해 모니터링 시행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

좋은세상만들기

좋은데이가  
함께합니다



네팔 굿데이 스쿨

Nepal GOODDAY School

해발 약 1,800m의 랑탕 지역에 건립된 “네팔 굿데이스쿨”은 네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주)무학에서 학교 건립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좋은데이나눔재단이 직접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건립된 희망학교입니다. “네팔 굿데이 스쿨” 완공으로 랑탕지역의 부족한 학업환경이 개선되어 기존학생 135명 외에도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